

지옥은 어떤 곳인가? (3)

신학박사 조 덕운

3. 지옥에 관한 잘못된 신학

우리는 앞서 구약 성서에 기록된 지옥에 관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지옥이 어떤 곳인가,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옥에 가게 되는가,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이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형벌이 어떤 것인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관하여 이렇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룸으로써 구원을 받아 이렇게 험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옥에 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지옥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모든 악한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형벌의 곳입니다.
- 2) 종말의 때가 되면 죽어 있거나 살아 있거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생의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고 악한 영혼들은 지옥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불과 벌레들에 의해 괴롭힘과 고통을 받게 되며, 이 형벌은 감해 지거나 중단 되지 않습니다.
- 3) 믿는다고 하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중적 생활을 하거나,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목회를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불신자들과 동일하게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지옥의 성격, 지옥에 가게 되는 요건,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과정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을 펼쳐서 지옥에 관하여 잘못된 신학적 교리를 표현하고 이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잘못된 지옥 교리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 왜 그것들이 잘못된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그러한 신학적 오류를 회피하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지옥에 관한 잘못된 신학 교리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 만인 구원론 [Universalism]: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은 사망 이후에도 계속되며, 인간들은 사망 이후에 영원의 관점을 분명히 보게 되므로 결국 믿지 않던 사람들도 지옥의 불 경험을 통하여 회개하게 되고 모든 혼들이 신앙을 갖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 2) 영혼 소멸론 [Annihilationism]: ‘영혼 소멸론’은 악한 혼들이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 불에 의하여 결국 소멸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는 일은 없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가. 만인 구원론의 오류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 받는다는 잘못된 신학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이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해도 죽지 않을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하셨고 매우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희를 죽일 수 있겠니? 선악과 나무의 열매 한 개를 먹는다고 어떻게 죽이시겠니? 그건 너희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보이시기 위한 한 방편일 따름이야. 그 말을 고지 곳대로 믿으면 곤란하지, 았그래?” 이런 그럴듯한 논리에 이브는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영국의 철학교수 John Hicks [1911-2012]를 비롯한 진보 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논리로 지옥의 심각성에 물을 타서 지옥은 그냥 하나님이 인간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설득함으로써 진리를 훼손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사탄의 논리를 그대로 전파함으로써 그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히кс 교수의 논리는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원적 사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합니다. 사람들의 혼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계획은 실패한 계획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이 되려면 지옥의 고통을 통하여 모든 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은 강력한 치료사 이시므로 지옥의 치료 과정을 통하여 죄인들의 혼이 고침을 받아서 의롭게 된다고 강변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전도하신 분인데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토록 혼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논쟁합니다. 마지막으로 히кс는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르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므로 어떤 종교를 통해서든 결국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소위 ‘다원주의 [Pluralism]’를 주장하여 성경에 반하는 종교적 진리를 주장했습니다.

히кс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와 현대 신학자들의 오류는 과연 어디에서 근원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신학 교리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론이 그럴듯하게 생각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수용하며 심지어 그 편에 서서 강변함으로써 사탄의 사역에 일조를 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오류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수록한 성경은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고 책망하며 바로 잡는데에 날센 검처럼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히кс의 논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면서도 공의로우신 창조주 이시므로 죄인의 징벌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적용되는 시한을 정하셨습니다. 만일 히кс의 논리에 따른다면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임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кс의 논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의 의미를 삭제하는 매우 잘못된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인들을 영원토록 벌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관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6-9]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8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9 그들은[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따르는 의로운 영혼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존하는 파멸의 불로 징벌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히스 교수는 감히 대항하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영원히 계속되는 불’로 사람들의 몸과 혼을 괴롭힐 수 있나요? 그 계획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강변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계획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로마서 3:10-18]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 그들의 눈앞에는[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이 묘사는 물론 악한 자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히스 교수는 인간성의 악함에 대한 이해가 매우 희망적이어서 지옥 불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그들이 쉽게 회개하여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반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는 살아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의도가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미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23-25]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아,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이,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자면, 사망 때에 정해진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사망 이후에 변동되지 않음을 여러번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 교수와 그 동료 신학자들이 제아무리 강하게 주장했어도 하나님의 입장은 불변합니다.

[마태복음 25:41]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4-46]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나. 영혼 소멸론의 오류

영혼 소멸론을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은 감리교회의 대표적 신학자인 John Stott [1921-2011] 박사입니다. 스톡 박사의 지옥 신학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면에서 그 오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스톡은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구절들, 예를 들면 다음 구절에서 “멸하다”는 것이 혼의 소멸을 이야기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0:28]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실제로 성경에는 악인의 혼의 멸절을 시사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10:28, 17:12; 로마서 2:12; 9:22; 빌립보서 1:28; 3:19 등에서 잘못 해석하면 마치 악인들의 혼은 종국에 지옥의 불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러 성경 구절은 “영존하는 형벌”을 의미하지 결코 “영존하는 소멸”을 뜻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의 다음 구절을 살펴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9]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구절은 분명히 악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쫓겨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퇴출되어 지옥에서 지속적으로 파멸되는 형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사탄과 그 무리에게 “멸망”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의미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8]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렁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요한계시록 20:10]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악인의 파멸이나 멸망의 표현은 결코 그들의 혼이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파멸의 경험을 하게 될 영벌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끝이 될 때까지도 마귀와 그 무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세상에서 그들의 사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시지만,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에 그들이 다시 주님에게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그들을 쳐부시고 불과 유황 호수로 표현되는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혼들은 마귀와 그 무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스톡 박사의 영혼 소멸론은 잘못된 신학 이론일 따름입니다.

스톡 박사의 두번째 논리는 다음 구절과 같은 지옥의 묘사에서 “끝 수 없는 불”로 껌질과 같은 혼들을 태우게 되면 그 혼들은 소멸된다는 의미라고 강변합니다:

[마태복음 3:12] *곧 손에 킶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되 껌질은 끝 수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이렇게 불 속에 던져져 불로 태우면 그 혼들은 불로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대로 그 혼들이 소멸되어 없어진다면 어떻게 다음 구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통곡과 이를 깊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 혼들은 소멸되는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지만,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의식은 생전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통곡과 극심한 신체적, 영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형벌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1-42]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영혼 소멸론 주장을 위한 스톡 박사의 세번째 논리는 영원한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형벌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혹을 품게 됩니다:

- 1) 선악과 하나를 나누어 먹었다고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축출하신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았나요? [창세기 3:24]
- 2) 사람들이란 원래 죄를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렇다고 온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켜 버리고 오직 노아 한 가족만 살려두신 하나님은 파괴 주의자이신가요? [창세기 7:23]
- 3) 잠간 자기네가 살던 소돔성을 딱 한번 뒤돌아 보았다고 하여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았나요? [창세기 19:26]
- 4) 처음으로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대로 했다고 하여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신 일은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요? [민수기 3:4]
- 5) 아간이 옷가지와 금은을 몰래 숨겼다고 하여 그 뿐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신 처사는 너무 무자비한 것이 아닌가요? [여호수아 7:24-25]
- 6) 하나님의 언약패를 수송하는 소가 끄는 수레가 크게 움직이자 이를 붙잡은 옷사를 쳐서 죽이신 일은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요? [사무엘하 6:6-7]
- 7) 초대 교회에 땅을 판 돈을 가져온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판매 대금에 관하여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죽이신 것은 너무나 처사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5: 1-10]

이 일곱가지 사례 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매우 극단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잔인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스톡 박사는 하나님의 지옥 형벌이 죄인된 인간이 저지른 잘못에 비례하지 않게 극심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옥에서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형벌은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가해지는 형벌이거나, 그 형벌의 결과로 그 혼들은 소멸되어 더 이상 형벌을 의식하게 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스톱 박사의 주장에 인간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스톱 박사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질문은, “도대체 우리의 잘못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엄청난 분노를 낳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이해하기 힘든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명백히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의 관점을 떠나 조물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형제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대한 잘못은 형제끼리 하는 잘못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하나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심각하게 여기고 그분들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국가의 대통령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면 형제에 대한 잘못보다, 부모에게 행한 잘못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백악관에 총을 들고 가서 울타리를 넘어 가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당장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범 죄는 쉽게 용서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소견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의 크기는 죄의 크기에 상응한다... 하나님께 대한 죄의 크기는 무한히 큰 것이다. 죄를 범한 대상 인물의 위치가 높을수록 죄의 심각성은 높아지는 법이다. 일반 시민의 머리를 치는 것보다 한 국가의 원수를 가해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인간보다 무한하게 위대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죄는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제 여러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도적으로 대들고 욕하거나 그분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용서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과 그의 무리를 아직까지도 용납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사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서 그렇게 오래 참으실까요? 그들의 죄가 너무 가벼워서 그냥 눈감아 주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신약시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행하신 죽음의 벌의 공의는 동일한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반항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형벌을 언제, 어떤 형태로 내리시는가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즉시 벌을 내리시지만 때로는 자비를 보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의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의 왕으로서 심판석에 재판장으로 앉으실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생에서 한 기록대로 심판 받을 것이며, 지옥에 가게되는 영혼의 벌은 영원한 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4. 바른 지옥관과 우리의 구원

우리는 지난 세차례의 공부를 통하여 지옥에 대하여 그곳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되는가, 그리고 지옥에서 받게 될 형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공부 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위 저명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지옥에 관한 신학 논리로 어떻게 신학생들과 세상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있는가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매우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 죄와 형벌, 종말에 있을 심판과 모든 혼들의 부활, 그리고 악한 혼들이 지옥에서 경험하게 될 영벌에 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매우 훌륭한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렇게 험악한 지옥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 복음의 초대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을 받아 읽는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의 복음의 초대를 받아 들이시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멸망의 미래에서 영원한 생명의 미래로 가는 열차로 옮겨 타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커다란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